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군, 맞춤형 시책으로

‘귀농·촌 2천 세대’ 유치

인구 유입 뚜렷...올해 단계별 지원 사업 추진



화순군이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올해 귀농·귀촌 2000세대 유치를 목표로 관심 단계, 실행 단계,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 7억8000여만 원을 들여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3단계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지역 유입 인구 중 귀농·귀촌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서 실효성이 높고 조그맣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도시민 유치에 더 적극적이다.

실제 화순으로 귀농·귀촌한 세대와 인구 수 추이는 뚜렷한 경향은 없지만, 매년 유입 2100명 이상 귀

농·귀촌했다. 국가통계포털 귀농·귀촌인 통계(매년 6월 말 공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순 귀농·귀촌 인구는 2100여 명에서 2300여 명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18년은 눈에 띄게 늘었다. 화순군의 진출입 현황 등 인구동향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귀농·귀촌한 세대는 1793개 가구였다고 인구는 4265명이었다. 전년(2299명)과 비교하면, 1966명(증가율 46.10%)이나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민의 농촌유치 프로그램 등 단계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화순군의 귀농·귀촌 유치 목표는 2000세대다. 연 2회 개설하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효과는 상당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료생 346명을 배출했고 이 중 33.6%가 화순에 정착해 인구 유입에 한몫하고 있다.

귀농·귀촌 실행 단계 초기에 주거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위해 ‘귀농인의 집’ 11개소를 운영 중이고, 올해 2개소를 더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귀농 희망자가 농촌 지역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인의 집’을 이용했던 17명 중 41%가 화순에 정착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마을잔치 지원(15개소), 동호회 지원(4개소), 자녀를 키우는 이주 세대의 초기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 위한 귀농 가족 안심 정착 지원(10개소) 등 귀농 실행 초기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귀농귀촌 동호회 귀농인 연락처 적용지원(마을잔치), 새내기 영농 체험농장 교육 등 6개 사업의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다.

2019년 화순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는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강진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강진군은 최근 체계적인 세외수입 시스템 운영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강진군청 각 부서들과 읍면의 세외수입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표준지방세외수입시

스템의 운용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외수입 실무를 다루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입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세입원으로, 강진군은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해 난해에는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전담에서 유일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강진군이 지난해 9월부터 세무회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징수율을 끌어올린 결과로,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관리

로 올해에는 세외수입 세입액 160억과 징수율 92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올해 3월 중으로 도입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자 통합안내장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 체납 내용을 체납자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 발송해 납부자의 편의 향상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교육은 세외수입 세수 확대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부풍토 조성과 체납액 감축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공부하고, 업무에 능숙해져야 한다”며 “세외수입 팀을 필두로 하여 세외수입 세수 확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읍,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영암군 영암읍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양승만)는 지난 20일 추진위원장과 위원 영암읍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첫 정기총회에는 2018년도 추진했던 사업내용을 결산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보고

와 예산안 승인, 영암읍민의 날 및 경로위안잔치 일정조정 건, 조직 정비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2019년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제27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등 읍민 참여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정기총회에서는 ‘제16회 영암읍민의 날’을 전남도 장애인체

육대회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초 5월 1일에서 4월 26일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양승만 추진위원장이 연인하게 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조문식, 감현자 위원을 감사에는 김병훈, 정성기 위원을 선임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담양군 “‘힐링이 되는 담빛 맛기행’ 함께 떠나요”

광주시와 연계 투어 프로그램 5월까지 진행



담양군은 광주시와 지역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과 남도음식의 체험을 위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힐링이 되는 담빛 맛기행’ 여행 프로그램

를 진행하고 있다.

‘힐링이 되는 담빛 맛기행’은 전국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콘텐츠로, 담양과 광주의 주요 관광지에 명사의 스토리텔링이 함께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담양 추억의 골목, 용마루길 창평 슬로시티와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광주호 호수생태마을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담양의 농가식당에서 즐기는 유기농쌈밥,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광주 한정식 등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약초장아찌 만들기, 책 만들기 등 관광객이 직접 요감으로 지역을 느끼면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으로 진행된다. 당일코스 뿐만 아니라 1박2일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입소문을 타고 부산, 순천, 제주 등에서 단체 여행으로도 인기가 높다.

담양=박종영 기자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 수종 선정 및 난대림 조성 추진

완도군은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가뭄, 겨울철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수종의 식생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기후변화 대응 대표 수종을 선정하여 난대림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의 자문을 통해 지역 향토수종 중 황칠, 동백, 구실잣밤, 붉가시, 완도호랑가시 나무를 기후변화 대응 대표 수종으로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수종 경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수, 공원 등 도시 숲 조성 및 토목·건축 분야 인허가시 조정과 복구 설계에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이외에도 생달, 녹나무, 후박, 먼나무, 감탕, 육박, 뽕나무, 이나무, 모감주, 다정령, 참가시나무 등을 권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차년도 기후변화 난대림 조성 사업으로 해양치유산업단지인 신지 명사리해수욕장 일원의

0.8ha 면적에 붉가시, 생달나무를 식재하여 해안 방재림을 조성하고, 각 읍·면 621ha 산림 면적에 황칠, 동백, 생달나무 조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활착률 제고를 위해 3월 말까지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탄소흡수원이 풍부한 완도 산림자원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여수시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

아름다운 여수의 사계절 풍경을 담은 사진을 선정하는 2019년 여수 사계절 관광사진 공모전이 진행된다.

여수시는 10월 31일까지 월별 지정테마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접수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사진 테마는 월별 2개 주제로 여수의 일몰, 여수의 야경, 여수의

단풍 등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작품사진(11X14인치)과 이미지 파일, 응모지원서, 출품표를 시 관광과로 제출(방문·우편)하면 된다.

응모지원서, 월별 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 제2019-

308호)되어있으며, 접수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다.

시상금은 최우수(1명) 300만 원, 우수(1명) 150만 원, 장려(7명) 60만 원, 입상(31명) 3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이다. 입상작은 주제적합성, 내용충실성, 소재상징성, 작품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여수시 관광달력, 홍보물, 관광지도 등 여수 홍보에 활용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